

음식과 수행

체질과 음식 ④

기질의 균형이란 바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적 욕구이다

이번 호에서는 먹이감각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먹이감각을 되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식과 같은 단기적인 치료도 있고 생식, 전체식(겉질과 뿌리까지 먹는 방법)과 같은 치료도 있으며 자제교정이나 호흡법 교육과 같은 특별치료도 있지만 무엇보다 쉽고 효과가 높은 것은 체질에 따라 적합한 음식을 먹는 섭생치료법이라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체질에 따른 적합한 음식을 찾기 전에 앞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들을 알고자 한다. 그것은 균형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입맛이 있는 것은 음식물로 인한 세 가지 균형을 찾기 위한 인데 그 세 가지 균형이란 영양의 균형, 열량의 균형, 기질의 균형을 말한다.

먼저, 영양의 균형이란 말할 것도 없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흡수하려는 욕구이며 열량의 균형이란 인체가 생명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기질의 균형이란 바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적 욕구로 어떻게 보면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해도 무방하다. 기질의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과 물이 바로 생물의 원천이 되는 기이며 태양은 양의 근본이고 물은 음의 근본이 된다. 태양과 물의 구성비, 또는 기호도에 따라 생물은 기질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서로 상

대되는 기질을 취해 안정을 취하려는 기질의 균형 욕구가 있다. 태양과 물의 관계를 추적하여 생명의 체질적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 섭생의 원리이며 이것은 원초적인 자연의 상태에 부합하면 완전한 건강을 누리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약이나 수술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병이 생긴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물인 병만을 없애기 위해 독이 되는 약을 먹는다면 일시적으로 병이 난 부위와 증상에는 도

움이 되겠지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피는 그대로이며 게다가 이 피는 독이 되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음에는 약이 듣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의 기동을 이루고 있는 수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술은 일시적인 고통이 사라져 좋아지다가 결국 척추를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은 그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데 병의 원인이 되는 피가 바뀌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과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세포를 강하게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면 부분적인 증상이나 고통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생활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결국 식생활의 개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영양과 열량, 그리고 기질의 균형을 이루는 식생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길을 찾도록 하자.\* 이승우 기자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회>

인민군 감시를 피해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한달 반 동안 버텼다

-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
  -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 3) 북으로 북으로
  - 4) 필사의 탈출
  - 5) 신양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 6) 총살당하다

3) 북으로 북으로

한강 다리가 폭격에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민군들은 포로들을 노랑진을 거쳐 영동포 연천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일곱째 천사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구둣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아무리 바르게 걸어 보려고 애를 써도 가중되는 고통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마포 형무소에 이르러 보니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경찰 간부, 대한청년단장, 군인 등 저명인사들이 일천여 명 넘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째 천사가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곱째 천사의 사정을 듣고 난 후 이구동성으로, "어린 것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 잔인한 놈들" 하면서 같은 처지이지만 일곱째 천사를 가여워 해 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매 맞는 통증으로 고생하며 마포 형무소에서 며칠 지낼 때에는 더운 7월 여름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텅 빈 마음의 소유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빨갱이들은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천여 명의 우국지사들을 모두 죽여 없애기로 작정한 듯이, 그들은 마포 형무소에서 4, 5일을 지나는 동안 수감자들에게 쌀 한 톨,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으나 목이 타는 갈증은 해



'단정의 미아리 고개' 유행가 가사에 6.25전쟁 때 수모 살의 일곱째 천사가 겪은 처참한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소할 수 없어 밖에 있는 간수에게 "선생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고 애원하니, 그 간수가 한다는 말이, "이 반동 아새끼가 물은 무슨 물이야? 너희들은 곧 죽을 놈들이다."고 쌀쌀하게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철사줄에 묶여 미아리고개를 넘어 북으로 압송당하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인민군들이 모두 나오라 하여 밖으로 나갔더니 철사줄로 두 손을 꽂공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긴 쇠사슬로 앞사람과 뒷사람을 이어서 연결하고 일렬종대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비행기의 폭격이 심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으스스한 소나무 숲에서 숨어 지내다가 어두워지면 북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그대로 일곱째 천사는 철사줄에 두 손 꽂공 묶인 채로 맨발로 절뚰 절뚰 미아리 고개를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 동두천, 전곡, 연천,

철원, 평강을 거쳐 신고산을 돌아 원산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모두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므로 하루 밤에 10리 정도 가면 먼동이 트면서 날이 밝아와서 원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걷다보니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줄로 묶인 채 행진하던 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쓰러진 사람을 풀어서 총으로 쏘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또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민군은 한 달 반 동안 쌀 한 톨, 물 한 모금을 주지 않고 끌고갔다

그들은 북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쌀 한 톨,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인민군 감시병에게 들리면 사정없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후려치기 때문에 물레 뜯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숨어있는 자리에는 풀이 남아나지 않았으며, 일곱째 천사는 풀을 뜯어 먹으면

서 소가 풀을 맛있게 먹는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썩을 뜯어 먹으면 흐릿한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좋은 요기가 되었습니다. 평강쯤에 가서 누가 옥수수를 먹고 속배기를 버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시병이 눈치채지 못하게 물레 주워서 흙이 묻은 것을 옷에 털어버리고 먹었더니 정신이 번쩍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목이 말라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노랑다 못해 붉은 피 색깔이 도는 텁텁한 오줌을 손에 받아서 입을 축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줌이 '더럽다', '냄새가 난다' 하는데 그것은 목이 마르지 않을 때의 소리입니다. 일곱째 천사에게는 오줌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물이나 싹트 먹고 죽자' 하고, 쇠사슬에 연결되어 묶인 동료들을 끌어당기며 눈에 가서 물을 먹다가 인민군의 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민군은 죽은 사람을 쇠사슬에서 풀어서 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쇠사슬을 연결해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스물 살 나이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럽던 것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함경도 원산까지 6백리를 한 달 반 동안 물과 음식을 못 먹는 상태에서 도보로 끌려가는 동안에 포로의 삼분의 이가 낙오자가 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굶주림의 극한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냈던 일곱째 천사의 인내심은 나중에 30일의 금식기도를 14번이나 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로 하여금 죽음의 경지까지 경험하게 한 것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강한 인내심을 기르는 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구세진인(救世眞人)의 출현공식(出現公式) (1)

구세진인(救世眞人)은 삼신(三神)이 일체(一體)가 되어 일인(一人)으로 출현한다

◆ 천기에 가려진 공식은 가짜를 드러낸다

천기(天機)의 비밀(秘密)에 가려진 구세진인(救世眞人)의 출현공식(出現公式)인 삼신일체일인출(三神一體一人出)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공식에 대입시켜 맞지 않게 출현한 사람은 진인(眞人)이 아니다. 지금은 확실한 진인을 찾아야만 하는 시급한 때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으며 교주도 여럿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기독교, 가톨릭), 부처를 믿는 사람(불교, 원불교), 알라를 믿는 사람(이슬람교) 등등 종교도 많고 교주도 많다.

왜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걸까?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재림예수,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로 말하는 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 도대체 어떤 종교가 진짜이고 어떤 종교가 사이비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정성을 똑바로 차려야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격암 남사고 선생은 "천 마리 닭 중에 봉황이 하나 있는 것을 가려내기 어려운 것처럼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성인 중 어떤 분이 진짜 성인인지 알 수 없다(격암유록 송가전)"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갈파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때다.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기로에 놓인 때다. 역학적으로 인류를 알곡과 쭉정리로 가르는 심판의 때요 주수의 계절이다. 이때를 대비하여 성인들은 구세진인(救世眞人)이 출현하니 그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인류에게 경전을 주는 사랑을 베풀었다. 성경, 불경, 코란, 주역, 사서삼경 등의 경전에는 심판기(審判期)에 출현하는 구세진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데에 대한 모든 답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전들이 모두 방대하고, 뜻이 어려워져 보통사람들은 여러 번 읽어도 그 답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명 읽을지라도 읽고설켜 있는 숨겨진 천기(天機)를 골라서 짚을 맞추어 알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전은 그 경전의 주인공이나 제대로 해독할 수 있지 주인공이 아닌 일반인은 풀

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구세진인(救世眞人)이 출현하는 과정에는 하나님(부처님)께서 특별히 정한 방식이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아무 예고도 없이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자신이 구세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경전이 인정하는 구세진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세진인(救世眞人)은 경전에 제시된 세 분이 순차적인 절차와 계보를 거쳐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세진인(救世眞人) 출현공식(出現公式)'이라고 정의하였다. 인류 역사 이래 이 비밀한 공식대로 출현한 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허상'을 진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나 석가나 강일순, 문선명 같은 존재는 구세진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경전에 다 들어 있다. 말법시대에는 가짜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하나님(부처님)께서는 심판기(審判期)

에 이러한 가짜들이 많이 출현하여 어리석고 가여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을 다아시고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세진인 출현공식'을 남겨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구세진인은 왜 공식대로 출현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그것은 태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매우 수학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다.

1.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함 (삼신일체의 공식이 나오게 된 동기)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는 세 하나님(三神)이 존재하는 하늘나라였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해와도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다. 물론 당시의 아담과 해와는 지금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령한 존재로서 세 분 중 두 하나님이었다(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이므로 아담과 해와

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 여기서 성경적인 개념을 쓰는 것은 인류의 조상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극락)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곳(천국)이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이렇게 세 영(靈)이 있었다. 이것이 하늘의 삼수(三數)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영 중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사건(선악과를 따먹음)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아담은 남자로 변했고, 해와는 여자로 화해버렸다.

아담이 남자가 되고, 해와가 여자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1)+아담(1)+해와(1)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녀로 변화된 아담과 해와에게는 고통과 괴롭고 죽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이 생겨나게 된 동기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머지 한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 하나님은 특정 형태로 인간 속에 숨어 인류의 핏줄을 타고 계속 흘러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 그 하나님 속에는 다시 하늘나라를 회복하려는 염원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만으로는 하늘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삼신 체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삼신 체제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기 속에 가려진 비밀한 삼수(三數)의 진인 출현공식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를 숫자로 표현해 본다. 하늘나라는 3수다. 하나님(1)+아담(1)+해와(1) 해서 3이다. 여기서 아담(1)과 해와(1)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하늘나라는 3수가 되어야 온전하게 된다. - 계속\*

박태선 기자